

제목 : 가을 스케치

등장인물

종호 (35살, 남자) - 어렸을 적 앓은 소아마비 때문에 말더듬이, 한쪽 다리를 절뚝이는 재단사. 재단실에서 혼자 작업한다. 작업중 상상하는 버릇이 잦다. 자신의 옷을 상상 속 인물에게 입힌다.

청수 (35살, 남자) - 다큐멘터리 감독. 종호와 중학교 동창. 종호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는 존재. 다큐멘터리 목적으로 촬영을 시작했으나 점점 그에게 공감한다. 종호가 처음 재단실을 차릴 때 자금을 보태주었다. 그거 대신 자신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달라고 부탁한다.

로그라인 : 친한 사람 한 명 없는 고독한 재단사 종호에게 어느 날 돈을 값으라는 중학교 동창 청수가 등장한다. 하지만 청수는 돈 대신 자신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달라고 한다. 청수의 뜬금없는 제안에 우발적으로 승낙한 종호. 다큐를 찍어 나가며 과거 자신의 트라우마와 마주한다.

기획의도 : 현재의 불우한 상태의 원인을 흔히들 과거에서 찾는다. 자신의 결핍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존재라면 어떨까? 원망하지만 또 사랑하는 애증의 관계라면 어떨까? 이런 물음을 시작으로 결핍 때문에 고독하게 지내는 주인공이 자신의 결핍과 마주하는 과정을 그리고 싶다.

시나리오

S#1 재단실 안 재단기 앞 (실내)

드르륵, 드르륵 재단기 소리.

어둑어둑 푸르스름한 재단실에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다.

종호의 뒷모습. 재단기를 이용하여 옷을 수선하고 있다.

덥수룩한 머리. 거뭇거뭇 한 수염 자국. 왜소한 체격에 흐리멍텅한 눈의 종호.

갑자기 재단기를 끄다. 일어서는 종호.

재단실 끝에 있는 테이블로 다리 한쪽을 절뚝이며 절름발이로 걸어간다.

스케일을 들고 다시 재단기 앞에 앉는 종호.

다시 재단기를 작동시킨다. 다시금 울려 퍼지는 드르륵 소리.

(또각.. 또각.. 또각..)

구두 발걸음 소리가 먼발치에서부터 들린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 점점 크게 들린다.

또각. 멈춰서는 발걸음 소리. 재단기에서 손을 떼고 옆을 바라보는 종호.

카메라 옆으로 달리 인. 낡은 구두를 신은 채 서 있는 한 여인이 보인다.

가만히 바라만 보는 종호.

(cut to)

(음악 몽타주)

재단기 앞에서 옷 수선을 하고 있는 종호.
종호의 뒤로 여인의 손 하나가 나와 종호의 손을 잡는다.
여인의 손가락에는 캐릭터 대일밴드가 붙어있다.
여인이 입고 있는 얇은 니트는 해져있다.

(cut to)

여인의 팔 주변으로 스케일을 잼다.

(cut to)

정측면. 인물 사이즈 목 밑까지.
수선하던 옷을 들고 여인에게 가져다 댄다.

S#2 재단실 안 침대

하이 앵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종호.
수선하던 옷을 이불처럼 덮고 슬며시 눈을 감는다.
여인의 손이 프레임 인. 종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는다.

INS.

(휴대폰 진동 소리)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이 환해진다.

“청수 : 연락 안 받나?”

“청수 : 내 돈 값아야지”

침대 위에 홀로 덩그러니 누워있는 종호.

멍하니 천장만 바라본다.

S#3 길거리 골목 (실외/밤)

어두운 밤. 시끌벅적한 시내 길거리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보이는 도로 반사경.
담뱃통을 앞에 두고 담배피며 서 있는 청수.
짧은 모히칸 머리와 검정 라이더 자켓을 입고 있다.
초조한 듯 한쪽 다리를 건들거린다.
종호가 보이자 급하게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꺾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오는 종호.

이내 종호가 옆까지 오자 청수는 반가운 듯 어색한 미소와 함께 손을 들어보인다.

청수

(두 손을 자켓에 넣은 채 웃으며 고개로)

잘 지냈냐?

밥은? 옆에 고깃집 잘한다던데 거기나 가서 얘기할까..?

종호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그냥 여기서 얘기해

청수

(잠시 노려보는 청수)

그래 뭐.. 여기도 분위기 있네

(쫄그려 앉으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핀다)

내 돈 언제 갚냐?

너 그.. 뭐냐.. 그.. 킹스맨인가 재단산가 그거 한다고 100만원 빌려줬잖아

그거 언제 갚냐고

종호

금방 갚을게

언제는 때 되면 갚으라더니..

청수

(호탕하게 웃으며)

그거 내가 없던 걸로 해줄까..?

종호

뭐..? 그게 무슨..

청수

대신 내 다큐멘터리 출연 좀 해라

이번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이름 좀 날리려고

어때? 죽이지? 한번 출연에 100만원이면 탑급 개런티잖아.

종호

나 같은 거 찍어서 뭐하려고..?

됐고 돈은 금방 갚을게

청수

이야, 돈 빌려줄 땐 서서 주고, 받을 땐 엎드려 받는단 말이 진짜네

이 정도 말했으면 서로 좋게좋게 하면 좀 좋냐
너 그거 벌써 2년 다 돼가니까 줄려면 이자까지 쳐서 줘야 돼, 알지?

종호
(..??)

청수
내가 이번에 희망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희망의 친구는 누구냐? 절망이잖아.
살면서 내 주변에 너만큼 절망적인 놈이 없어
절름발이에 친한 사람 한 명 없고
혼자 고독하게 일만 하는 재단사
(두 손으로 카메라 앵글 모양을 하고 종호를 비춘다)
키야, 디스토피아 그 자체야 자체

종호
(크게 한숨을 내쉰다)

도로 반사경에 비친 둘의 모습.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S#4 재단실 안 재단기 앞 (실내) - 서사 더

낮. 종호의 재단실 안. 너저분한 재단실. 피죄죄한 옷차림의 청수.
환한 형광등 조명이 켜져 있다.
청수의 캠코더 화면. 재단기 앞 의자에 앉아있는 종호의 모습이 보인다.
청수가 화면을 조정하는 듯 줌인, 줌아웃이 반복된다.

청수
재단사는 왜 하는 거야?

시선을 어디 돌지 모르는 종호.
결국 시선을 멀리 둔 채 대답한다.

종호
그냥 옷이 해져있는 게 보기 싫어서

청수
(부산스럽게)
내 옷도 해줘 그럼
나 해진 옷이 너무 많다.
지금 이 옷도 만간이네

청수가 캠코더로 피죠티한 종호의 소매에 줌 인 한다.
줌 인 되는 캠코더 화면.

청수
야 그 전에 니 옷이나 먼저 꺾매라.

자신의 옷매무새를 확인하는 종호.

청수
야 우리 로드 무비로 찍을까?
정적인 거 말고 좀 깔삼하게 있잖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영화 나오면 존나 지루할 거 같은데
어디 가고 싶은 곳이나 뭐.. 한 번 말해봐.

고민하는 종호.

(cut to)

카메라 틸트 다운.
저녁. 드르륵, 드르륵 재단기 소리.
어두운 재단실 안. 스탠드 조명 하나에 의존하여 다시 수선하고 있는 종호.
종호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다. 이내 균형을 잃고 한쪽 팔이 테이블로 떨어진다.
재단 기구들이 땅바닥으로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cut to)

어안렌즈. 더치앵글.
눈을 감고 침대 구석에 새우 자세로 쪼그려 누워있는 종호.
땀이 흥건히 흐른다. 상의까지 땀이 범벅이다. 몸을 벌벌 떤다.

S#5 주택 베란다 (실내/낮/플래시백)

베란다가 팔꿈치를 걸친 채 담배 피는 종호 엄마의 뒷모습.
손가락에 캐릭터 대일밴드가 감겨있다. 베란다 후경에는 산이 보인다.
어린 종호가 절름발이로 걸어온다. 저는 다리 무릎에 붕대가 감겨있다.
방 벽을 잡고 조심스럽게 고개만 내민 채 바라본다.
어린 종호의 불안한 표정. 어린 종호가 다가가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
불안한 표정의 어린 종호.

S#6 학교 뒷산 아래 (실외/아침) - 서사 더

학교 뒷산 아래.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다.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보인다.

백팩을 메고 캠코더를 든 채 숨을 허덕이고 있는 청수.
그 뒤로 의연하게 다리를 절뚝이며 계속 걸어가는 종호.
청수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는다.

청수
(숨을 허덕이며)
잠시 쉬었다 가자
여기는 괜히 왜 오자고 해가지고 진짜

청수는 메고 있던 가방을 앞으로 해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신다.
계속 걸어가던 종호는 뒷산 입구 문턱에서 다리가 풀린 듯 땅바닥에 주저앉고 만다.

청수
(혀를 차며)
그 다리로 무슨 산을 간다고..

먹던 물을 주저앉은 종호에게 건네는 청수.

(cut to)

청수의 캠코더 화면. 주저앉아 있는 종호의 모습.
청수는 캠코더를 삼각대에 고정한다.
종호의 신발이 찢어져 있다. 그 부분을 줌 인 한다.

청수
(웃으며)
너 입마 신발 찢어졌어

찢어진 신발을 바라보는 종호.

청수
근데 여긴 왜 오자고 했냐?
괜히 중딩 때 생각나게
너도 나도 겁나 다사다난 했는데 그지?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는 종호.

청수
그래서 여긴 왜 왔다고?

종호
(...)

청수
여자냐? 첫사랑?

종호
(미소 보이며, 손을 휘저으며)
아니, 무슨.. 아니야

청수
(크크)
뭘 아니야. 딱 봐도 티 나구만
안 봐도 유튜브다 새까

청수와 종호가 함께 함박웃음 짓는다. 한참을 웃던 두 사람.

청수
(크크)
웃으니까 보기 좋네 임마

힘겹게 가에 벽을 잡고 일어서는 종호. 다시 올라가려던 찰나에 다시 넘어진다.
청수가 주저앉아 있는 종호에게 다가가서 옆에 앉는다.

청수
종호야, 여긴 왜 오자고 한 거냐?
중딩 때 너 그 다리 때문에 수학여행도 못 갔던 거 기억하냐..?
그때 제주도 어디 한라산 오른다고 그래서 그랬던 거 같은데 뭐 아무튼
근데 또 산에 오자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종호
산 오르는 거 좋아했었거든
다리 수술한 후에는 잘 못갔지만

넌 다큐 왜 찍냐? 원래 일용직 같은 거만 했었잖아

청수
뭐.. 남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나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그래서

청수 타이트한 반응 샷.

S#7 재단실 안 (실내/밤/빛소리)

드르륵, 드르륵 재단기 소리.

종호가 찢어진 신발을 재단하고 있다.
재단이 다 된 신발을 신어보는 종호.

다리만 보이는 타이트한 샷. 달리 인.
다리를 절며 저벅저벅 걸어간다.
전신거울 앞에 서는 종호.

(음악 BGM)

두 발로 자유롭게 통통 뛰는 종호의 발.
음악에 맞춰 이리저리 움직이며 자유로운 스텝을 맞춘다.
카메라 종호의 발을 따라간다.

끝으로 전신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듬고, 옷매무새를 확인하는 종호의 모습.

쿵. 쿵. 쿵
빠르게 현관문 두들기는 소리.

청수
(다급한 목소리)
나야 임마, 문 좀 열어봐

INS.

비에 젖은 검정 라이더 재킷을 재단기 앞에 놓는 청수.

비에 젖은 머리를 손으로 계속 문지르는 청수.

청수
가을비가 다 내리냐
비 내리기엔 아직 이른데

종호가 신고 있던 신발을 보는 청수.

청수
오, 다시 고쳤네
고쳐 신으니까 더 좋아 보인다 야

종호
(웃으며 신발을 앞으로 내보인다)

재단기 테이블에 걸터앉는 청수. 담배를 꺼내기 시작한다.

청수
한 번만 필게.

담뱃불에 불을 붙이고 크게 한 번 내뿜는다.

청수
내일까지만 짝자.
우리 끈대 끝이어서
아무래도 가보긴 해야할 거 같다.
(썸6에 서사 깔기)

S#8 학교 뒷산 중턱 (실외/오후 6시 즈음)

하늘이 후경에 딱 차는 학교 뒷산 중턱.
저 멀리서부터 종호의 머리가 올라온다.
점점 종호가 다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
힘겹게 뒷산 중턱으로 올라오는 종호.

종호가 카메라 앞으로까지 와서 프레임 아웃하자,
그 뒤로 힘겹게 올라오고 있는 청수가 보인다.
하늘이 후경에 딱 찬 산 중턱에 걸터앉는 종호.
종호의 뒷모습이 넓은 화각에 잡힌다.
그 옆으로 힘겹게 다 올라온 청수의 모습.

청수
그럼 어머니랑 같이 오지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데

종호
이젠 같이 못 와
그때처럼

(cut to)

노을이 질 거 같은 하늘.
산 중턱에 앉아있는 종호의 뒷모습.
그 옆으로 종호의 어머니가 티벳터벳 다가온다.
이내 종호 옆에 나란히 앉는다.
옷소매가 많이 해져있는 종호 어머니.
한참을 쳐다보는 종호. 어머니의 옷소매를 만지작거린다.

종호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담배뿔어..?

청수가 가방에서 캠코더를 꺼내 켜다.
하지만 이내 캠코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쉰다.

청수
하 씨.. 배터리가 없나

청수는 두 손으로 카메라 앵글을 만들어 앉아있는 종호를 찍는다.

청수
지금 기분 좀 어때?
종호가 하늘 쪽을 바라본다.

종호
좀 답답했었는데
이제 됐어.

손가락 앵글로 종호를 잡는 청수와 하늘을 바라보는 종호.
와이드한 백샷. 후경에는 노을이 지고 있는 하늘이 보인다.

END.